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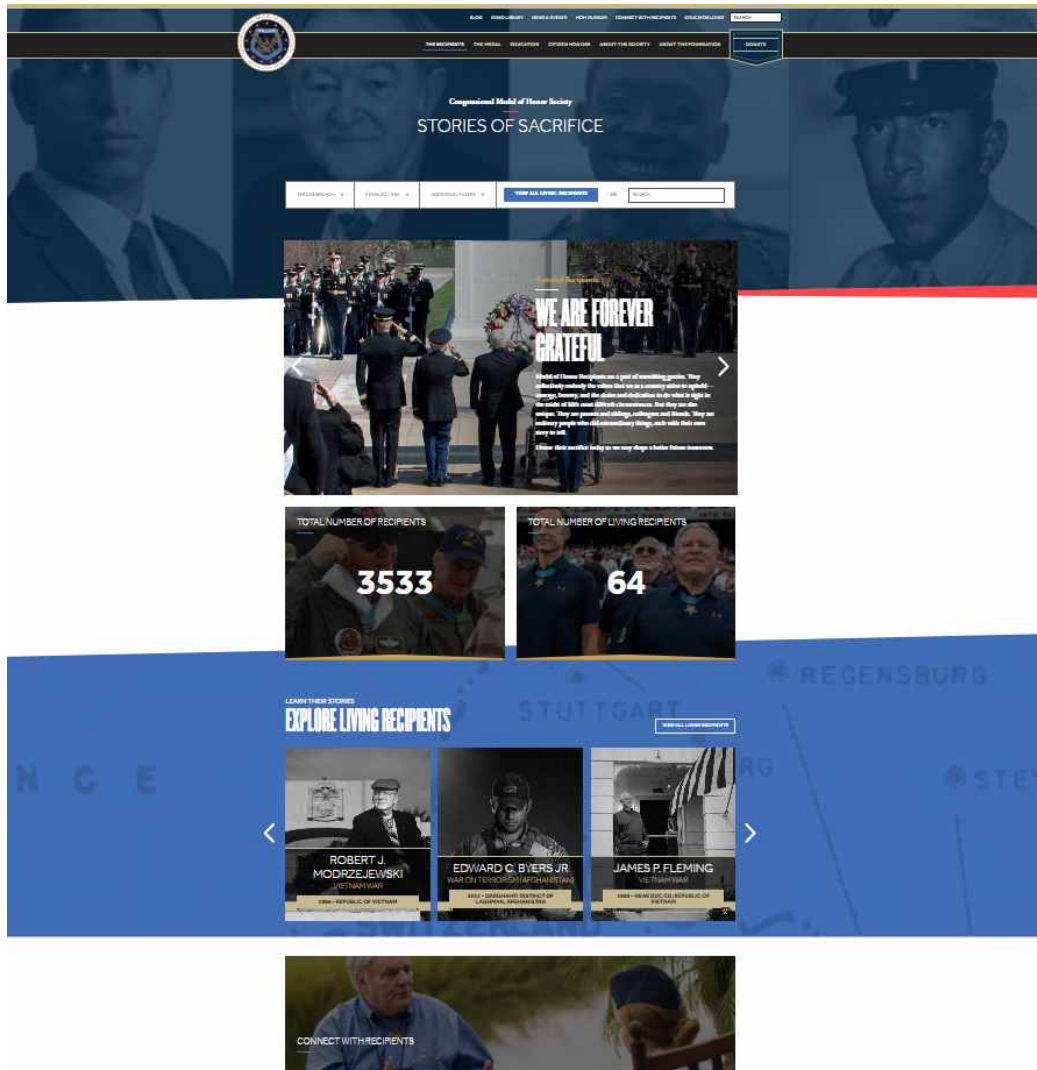
영웅들 이야기

-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17명의 전투 영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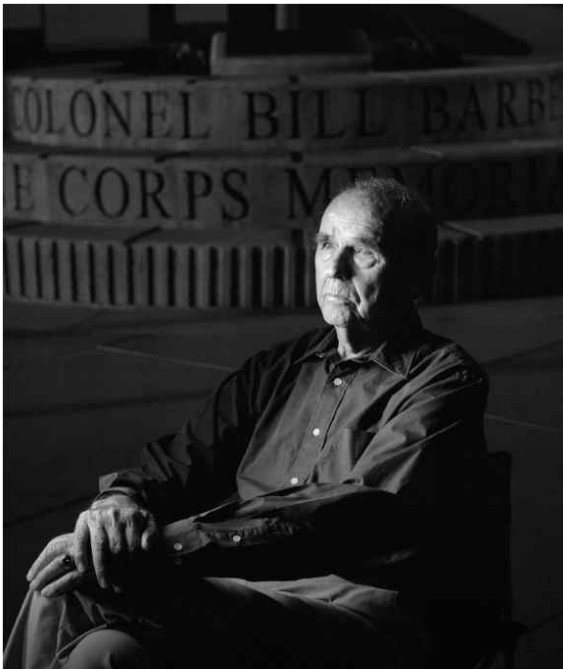
1. 윌리엄 E. 바버(William Earl Barber, 1919~2002) 대위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술적 승리 중 하나로 꼽히는 ‘덕동고개 사수’의 주인공, 윌리엄 E. 바버 대위의 공적은 미 해병대 1사단 전체가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계급: 당시 대위(최종 계급 대령)

소속: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F중대(Fox Company) 중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은성훈장(Silver Star)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8일 ~ 12월 2일, 덕동고개)

장진호 전투 당시 미 해병대는 유담리와 하갈우리로 분산되어 있었고, 그 사이를 잇는 유일한 보급로가 바로 덕동고개였다. 만약 이곳이 중공군에게 점령된다면 유담리에 있던 해병대 본대는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무원의 상태로 전멸할 위기였다.

사수 명령: 바버 대위가 이끄는 '폭스 중대'(약 200여 명)는 이 고개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립무원의 사투: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 2개 연대(약 수천 명)가 밤마다 파상공세를 펼쳤다. 중대원들은 잠 한 숨 자지 못하고 백병전까지 치르며 고지를 지켰다.

부상 투혼: 전투 도중 바버 대위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들것에 실린 채, 혹은 말뚝을 박아 몸을 지탱하며 중대원들을 지휘했다.

구출 성공: 5일 동안 고립되어 싸우는 동안 중대원의 절반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지만, 끝내 고개를 지켜냈다. 결국 12월 2일, 레이먼드 데이비스 중령이 이끄는 구출 부대와 연결되었고, 덕분에 유담리의 해병대 8,000여 명은 안전하게 하갈우리로 철수할 수 있었다.

② 역사적 평가

“폭스 중대의 기적”: 군사 전문가들은 바버 대위의 F중대가 덕동고개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장진호 전투는 미 군사 사상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 해병대의 전설: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오늘날 미 해병대 장교 교육 과정에서 '지휘관의 책임감'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쓰이고 있다.

③ 사진 정보

바버 대위의 사진은 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전장 현장 사진: 방한모를 쓰고 수염이 덩수룩한 채 지도를 보고 있는 모습에서 당시의 처절한 상황이 그대로 느껴진다.

훈장 수여식: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을 때 정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다.

④ 흥미로운 사실

바버 대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오지마 전투에서도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은성훈장을 받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두 번의 큰 전쟁에서 모두 영웅적인 공적을 세운 진정한 군인이었다.

2. 윌리엄 B. 바우(William Bernard Baugh, 1930~1950) 일병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윌리엄 B. 바우 일병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분대원 전원을 구한 미 해병대의 전형적인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다.(성씨의 발음상 '바우' 또는 '바우어'로 표기)

계급: 해병 일병

소속: 제1해병사단 1해병연대 3대대 G중대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퍼플 하트(Purple Heart)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9일 밤)

바우 일병의 영웅적 행동은 장진호 전투의 가장 위험했던 순간 중 하나인 고토리에서 하갈우리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기습 상황: 영하의 어둠 속에서 해병대 보급 차량 행렬이 중공군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 적들은 길 양옆에서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바우 일병은 트럭 뒷좌석에 동료들과 함께 탑승해 교전 중이었다. 그때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 한 발이 트럭 적재함 안, 전우들이 밀집해 있는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살신성인: 수류탄을 밖으로 다시 던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20세의 바우 일병은 한마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

최후: 폭발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여 주변의 전우들을 구했으나, 본인은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다음 날인 11월 30일 전사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동료들의 증언: 당시 트럭에 함께 있던 대원들은 바우 일병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명예훈장 수여: 1951년,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이 전달되었다.

기념 시설: 그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해리슨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 해병대 교육 기관에서 '희생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③ 사진 정보

바우 일병의 사진은 미 해병대 정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앳된 청년의 모습이다.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전우를 위해 주저 없이 목숨을 던진 그의 얼굴은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여담: 장진호 전투 17인 수훈자 중에는 바우 일병처럼 수류탄에 몸을 던진 영웅이 더 있다. 로버트 케너모어 중사는 발로 짓눌러 폭발을 막아 생존(두 다리 상실)했고, 로버트 리즈 상병은 바우 일병처럼 몸으로 막고 전사했다.

3. 헥터 A. 카퍼라타 주니어(Hector Albert Cafferata Jr., 1929~2016) 일병

장진호 전투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단독 방어의 전설’로 불리는 헥터 A. 카퍼라타 주니어 일병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홀로 버텨낸 인물이다.

계급: 당시 해병 일병(최종 계급 소령)

소속: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F중대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퍼플 하트(Purple Heart)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8일 새벽, 유담리)

카퍼라타 일병의 전설은 장진호 전투 초반, 해병대가 유담리에서 포위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절체절명의 상황: 영하 30도의 한밤중에 중공군 1개 연대가 카퍼라타 일병의 소대가 지키던 고지를 기습했다. 치열한 교전 중 소대원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카퍼라타 일병과 부상 당한 동료 케네스 벤슨(Kenneth Benson) 단 두 명만 남게 되었다.

맨발의 사투: 급작스러운 기습에 카퍼라타 일병은 군화도 신지 못한 맨발 상태로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야 했다. 그는 벤슨이 보급해 주는 소총과 수류탄을 받아 들고 혼자서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수류탄을 야구공처럼: 적들이 참호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자, 그는 그것을 맨손으로 잡아 다시 적진으로 던졌다. 이 과정에서 수류탄이 손 근처에서 터져 손가락 일부를 잃고 팔에 중상을 입었음에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전과: 그는 혼자서 최소 15명 이상의 적을 사살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입혔으며, 적의 돌파 시도를 무려 5시간 넘게 저지했다. 그의 분전 덕분에 보충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선이 뚫리지 않았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생존 수훈: 그는 심각한 부상(손가락 절단, 팔 관통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예훈장을 받았다.

겸손함: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보다, 눈이 멀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소총 탄창을 채워주고 수류탄을 건네준 동료 케네스 벤슨의 공을 더 강조했다. (벤슨 역시 이 공로로 은성훈장을 받았다.)

별세: 2016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의 이름은 미 해군의 원거리 원정 기지함인 'USNS Hector A. Cafferata Jr.'의 함명으로 명명되어 기억되고 있다.

③ 사진 정보

카퍼라타 일병의 사진은 두 가지 모습이 대조적이다.

젊은 시절: 짙은 눈썹과 강인한 턱선이 돋보이는 앳된 해병대원의 모습이다.

훈장 수여식: 부상 당한 팔을 붕대로 감은 채 트루먼 대통령 옆에서 명예훈장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은 장진호 전투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다.

4. 레이먼드 G. 데이비스(Raymond Gilbert Davis, 1915~2003) 중령

레이먼드 G. 데이비스 중령은 장진호 전투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장진호 전투의 '기적적인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주역으로,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계급: 당시 중령(최종 계급 대장/4성 장군)

소속: 제1해병사단 7연대 1대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해군 십자훈장, 은성훈장(Silver Star) 등 다수



① 주요 공적 (1950년 12월 1일 ~ 4일, 덕동고개 구출 작전)

장진호 전투 당시 미 해병대는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서 각지로 분산되어 있었다. 특히 유담리의 해병대 본대가 하갈우리로 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동고개를 통과해야 했으나, 이곳은 중공군에게 포위된 채 윌리엄 바버 대위의 폭스 중대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불가능한 명령: 데이비스 중령은 눈보라가 치는 흑한 속에서 고립된 바버 대위의 중대를 구출하고 고개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로는 이미 적에게 차단된 상태였다.

야간 산악 행군: 데이비스 중령은 도로를 포기하고, 적들이 예상치 못한 해발 1,000m 이상의 험준한 산맥을 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영하 30도의 추위와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서 대대원들을 이끌고 밤새 산을 넘었다.

처절한 전투: 산등성이 곳곳에서 중공군의 저항이 있었으나, 데이비스 중령은 직접 선두에서 돌격을 지휘하며 적들을 격퇴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덕동고개에 도달하여 바버 대위의 생존자들과 합류했다.

철수로 확보: 이 구출 작전의 성공으로 유담리에 갇혀있던 해병대 8,000여 명과 차량 수백 대가 무사히 퇴각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열렸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전설적인 리더십: 그의 작전은 단순히 용감한 것을 넘어, 지형을 활용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끝까지 유지한 탁월한 전술적 결정으로 평가받았다.

해병대 대장 진급: 한국전쟁 이후에도 군에 남아 베트남 전쟁 등에서 활약했으며, 1972년 해병대 부사령관(대장)을 역임한 뒤 예편했다.

한국과의 인연: 그는 생전에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전쟁 당시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③ 사진 정보

데이비스 중령의 사진은 주로 다음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현장 지휘 사진: 방한 파카를 입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장진호의 흑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중 하나).

정복 사진: 가슴에 수많은 훈장 약장을 단 위엄 있는 대장의 모습

일화: “후퇴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의 공격이다”

장진호 전투 당시 “우리는 지금 후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병대 지휘부는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적의 포위망을 뚫고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데이비스 중령은 이 정신을 실제 전투 결과로 증명해낸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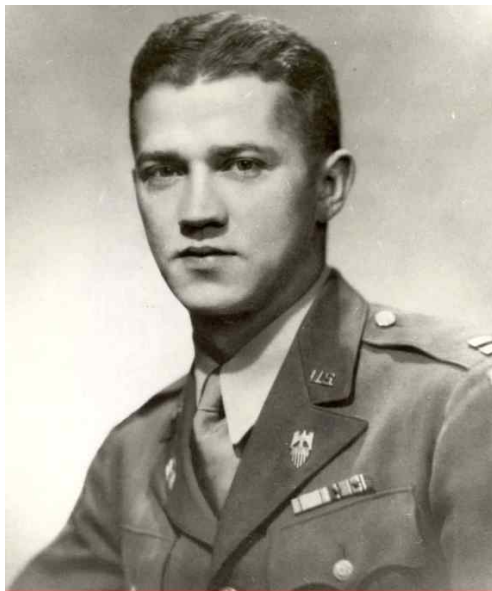
5. 돈 C. 페이스 Jr.(Don Carlos Faith Jr., 1918~1950) 중령

장진호 전투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서사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돈 C. 페이스 주니어 중령이다. 그는 미 해병대가 장진호 서쪽에서 분전할 때, 동쪽 지대에서 압도적인 중공군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페이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Faith)’의 지휘관이었다.

계급: 육군 중령

소속: 제7보병사단 32연대 1대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7일 ~ 12월 1일)

장진호 동쪽 연안에 배치되었던 미 육군 제7사단 31연대전투단은 영하 30~40도의 추위와 수적으로 10배가 넘는 중공군 80사단의 포위망에 갇혔다.

지휘권 승계: 원래 지휘관이었던 맥클린(Allan D. MacLean) 대령이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페이스 중령이 지휘권을 인수했다. 이때부터 이 부대는 그의 이름을 따 '페이스 특수임무부대(TF Faith)'로 불리게 된다.

절망적인 사투: 탄약과 식량이 떨어지고 동상 환자가 속출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페이스 중령은 부하들을 독려하며 5일 동안 방어선을 사수했다. 그의 분전 덕분에 서쪽의 해병대가 철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마지막 돌파와 전사: 12월 1일, 그는 부상병들을 트럭에 싣고 적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마지막 돌파 작전을 감행했다. 페이스 중령은 지프차 본넷 위에 올라타 직접 사격을 지휘하며 선봉에 섰으나, 적의 수류탄 파편에 중상을 입었고 결국 하갈우리 근처에서 숨을 거두었다.

② 63년 만의 귀환 (역사적 비극과 감동)

페이스 중령의 이야기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의 유해는 적진에 남겨져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해 발굴: 2004년, 북한 지역 유해 발굴 작업 중 장진호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신원 확인: DNA 감정 결과, 이 유해는 2012년에야 돈 페이스 중령으로 확인되었다. 전사한 지 무려 62년 만이었다.

알링턴 안장: 2013년, 그는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영면했다.

③ 사진 및 이미지

돈 페이스 중령의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수부대 장교 시절의 모습과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다. 특히 안경을 쓴 지적인 모습 뒤에 감춰진 강인한 군인 정신은 후대 군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④ 핵심 요약

미 해병대가 '장진호의 기적'이라 불리는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쪽에서 돈 페이스 중령과 그의 부대원들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면서도 중공군의 발을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병대 역사에서도 그와 미 육군 31연대의 희생을 높게 기리고 있다.

6. 제시 L. 브라운(Jesse Leroy Brown, 1926~1950) 중위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제시 L. 브라운 중위는 미국 군사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의 공적을 넘어, 인종 차별의 벽을 깨고 전우애를 실천한 숭고한 서사를 담고 있다.

타이틀: 미 해군 최초의 흑인 항공 조종사 (Naval Aviator)

소속: 제77기동부대 제32전투비행단(VF-32), 항공모함 레이테(USS Leyte) 배치

주요 기종: F4U-4 콜세어(Corsair)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① 주요 공적과 최후의 전투(1950년 12월 4일)

장진호 전투가 절정에 달해 미 해병대가 유담리에서 하갈우리로 철수하던 시기, 브라운 중위는 지상군을 근접 지원(CAS)하기 위해 출격했다.

추락: 유담리 인근 상공에서 저공 비행으로 적을 공격하던 중, 중공군의 소화기 사격에 연료선이 끊기며 엔진이 멈췄다. 그는 눈 덮인 산비탈에 거칠게 불시착했다.

절박한 상황: 기체는 반파되었고, 브라운 중위는 부서진 조종석(콕핏)에 다리가 끼어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기체에서 연기와 불길의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동료의 희생: 상공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인 동료 토머스 허드너(Thomas J. Hudner Jr.) 대위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투기를 고의로 불시착시키는 전설적인 결단을 내렸다.

마지막 순간: 허드너 대위는 맨손으로 눈을 파내며 그를 구조하려 애썼고, 뒤이어 도착한 헬기 구조대원까지 합세해 소화기를 뿌리며 사투를 벌였지만, 휘어진 조종석 판넬은 움직이지 않았다. 브라운 중위는 추위와 부상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며 “아내 데이지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전사했다.

② 역사적 의미

인종의 벽을 넘은 우정: 당시 미국 사회에 인종 차별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장교인 허드너 대위가 흑인 장교인 브라운 중위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기를 버린 사건은 미 군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우애의 표상으로 남았다.

함명 명명: 1973년, 미 해군은 그의 이름을 딴 호위함 ‘USS Jesse L. Brown (FF-1089)’을 진수했다. 이는 흑인 조종사의 이름을 딴 최초의 미 해군 군함이다.

③ 대중문화 속의 제시 브라운

그의 이야기는 최근 영화와 책을 통해 다시 조명되었다.

영화: <디보션 (Devotion, 2022)> - 제시 브라운 중위와 토머스 허드너 대위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장진호 전투의 공중전과 두 사람의 유대를 깊이 있게 묘사한다.

도서: 아담 마코스의 저서 『Devotion: An Epic Story of Heroism, Friendship, and Sacrifice』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다.

제시 브라운 중위와 그의 구조를 시도했던 토머스 허드너 대위는 이 공로로 나란히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7. 토머스 J. 허드너 주니어(Thomas Jerome Hudner Jr., 1924~2017) 대위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토머스 J. 허드너 주니어 대위는 미 해군 항공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전우애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제시 브라운 중위의 윙맨(요기)이었으며, 추락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경력을 모두 건 결단을 내렸다.

계급: 당시 해군 대위(최종 계급 대령)

소속: 제77기동부대 제32전투비행대대(VF-32), 항공모함 레이테(USS Leyte) 배치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① 주요 공적 (1950년 12월 4일, 유담리 상공)

장진호 인근에서 지상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인 제시 브라운 중위의 전투기가 적의 대공포에 맞아 산비탈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의 불시착: 허드너 대위는 상공에서 브라운 중위가 기체에 갇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 전 중위가 동사하거나 적에게 잡힐 것을 우려한 그는, 상관의 명령 없이 자신의 멀쩡한 전투기를 동료 옆에 고의로 불시착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맨손의 사투: 기체에서 뛰어내린 허드너 대위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눈을 파내며 브라운 중위를 구조하려 했다. 뒤이어 도착한 헬기 구조대원과 함께 도끼와 소화기로 조종석을 부수려 했지만, 휘어진 강철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극적인 이별: 날이 저물고 구조 헬기마저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브라운 중위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눈물을 머금은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훈장 수여: 1951년 4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허드너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해군 조종사가 받은 최초의 명예훈장이었다.

인종을 초월한 우정: 당시 인종 분리 정책이 남아있던 미국 사회에서, 백인 엘리트 장교가 흑인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버린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미군 내 인종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명 명명: 미 해군은 그의 공로를 기려 최신행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 'USS Thomas Hudner(DDG-116)'를 진수했다.

③ 사진 및 대중문화

사진: 허드너 대위가 훈장 수여식에서 제시 브라운 중위의 부인 데이지 브라운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당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 영화 <디보션(Devotion, 2022)>에서 배우 글렌 파월이 허드너 대위 역을 맡아 이 장렬한 실화를 생생하게 연기했다.

④ 노년의 여정

허드너 대위는 2013년,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우 제시 브라운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비록 기상 악화와 정치적 상황으로 유해 발굴에는 실패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전우를 잊지 않았던 그의 진심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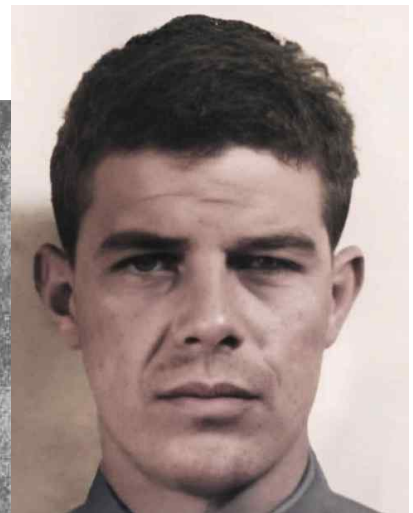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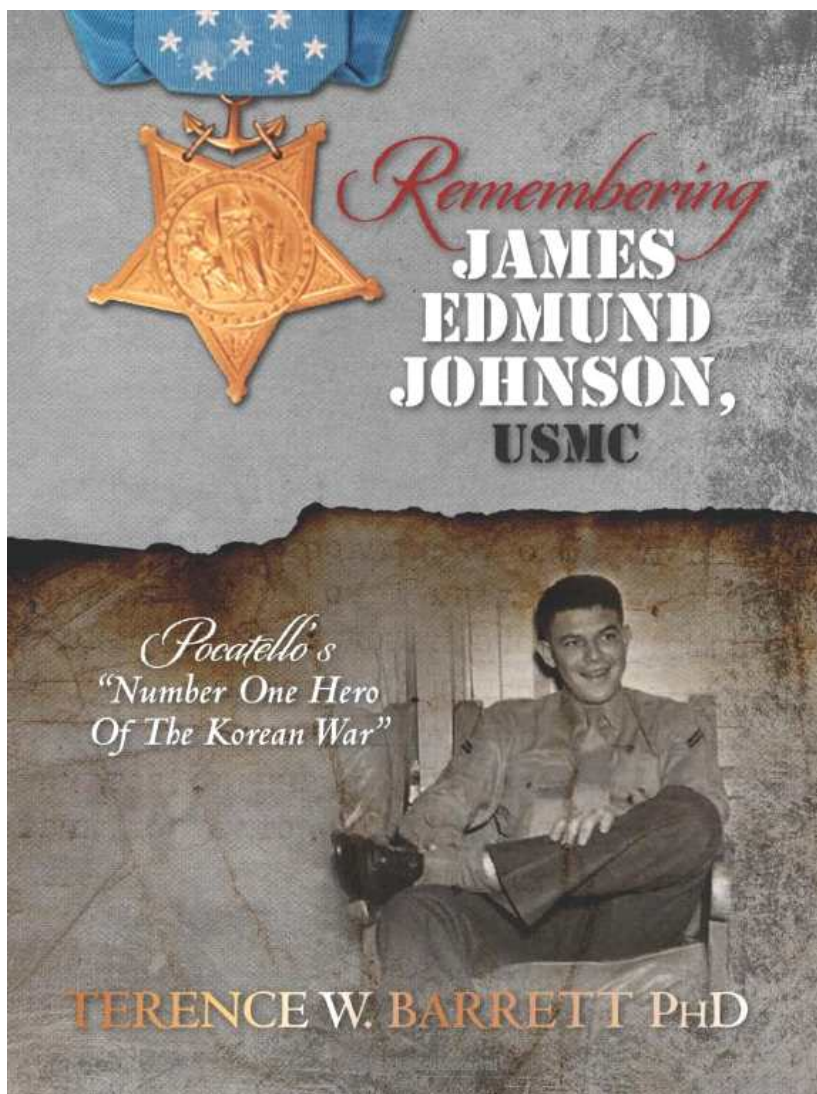
8. 제임스 E. 존슨(James Edmund Johnson, 1926~1950) 상사

장진호 전투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제임스 E. 존슨 상사는 부대원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진정한 후방의 수호자'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계급: 해병 상사(사후 추서)

소속: 제1해병사단 7해병연대 3대대 J중대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① 주요 공적 (1950년 12월 2일, 유담리~하갈우리 철수 경로)

존슨 상사의 영웅적 행동은 장진호 전투의 가장 처절한 국면이었던 유담리 포위망 탈출 작전 중에 발생했다.

포위된 부대: 해병 7연대와 5연대가 유담리를 떠나 하갈우리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내려올 때, 중공군은 도로 양옆의 고지에서 끊임없이 기습을 가했다.

자발적인 사투: 12월 2일 밤, 그가 속한 소대가 압도적인 수의 적군에게 포위되자 존슨 상사는 소대원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퇴각을 명령한 뒤, 본인은 적의 화력이 집중되는 지점에 홀로 남았다.

마지막 엄호: 그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소총과 수류탄을 사용하여 적의 추격을 끝까지 저지했다. 동료들이 안전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었으나, 본인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사후 추서: 그의 시신은 당시 긴박한 철수 상황 때문에 수습되지 못했다. 그의 공적이 인정되어 1952년 가족들에게 명예훈장이 전달되었다.

부사관의 표본: 존슨 상사는 부하들을 먼저 살피고 자신을 가장 나중에 돌보는 미 해병대 부사관(NCO)의 전통적인 리더십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교육된다.

③ 사진 및 기록

사진: 존슨 상사의 사진은 해병대 정복을 입고 날카로우면서도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는 흑백 초상화로 남아 있다.(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베테랑이었다.)

기념: 그의 이름은 미국 내 여러 해병대 시설 및 기념비에 새겨져 있으며, 장진호 전투 영웅의 한 사람으로서 '초신 퓨(Chosin Few)' 협회에서 중요하게 기려지고 있다.

④ 장진호의 '엄호' 영웅들

장진호 전투에서는 존슨 상사처럼 부대의 퇴로를 열기 위해 홀로 남은 이들이 많았다. 육군의 존 페이지 중령 역시 철수 대열의 후방을 지키다 전사했는데, 이들의 희생 덕분에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무사히 흥남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9. 로버트 S. 케너모어(Robert Sidney Kennemore, 1920~1989) 중사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로버트 S. 케너모어) 중사는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다리를 내던진 숭고한 희생의 주인공이다.

그는 ‘로버트 D. 리즈’나 ‘윌리엄 바우’와 비슷하게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낸 사례지만, 케너모어 중사는 기적으로 생존하여 그날의 용맹함을 증언했다.

계급: 당시 해병 중사(최종 계급 소령)

소속: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E중대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퍼플 하트(Purple Heart)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7일~28일 밤, 유담리 북쪽)

장진호 전투의 서막인 유담리 전투 당시, 케너모어 중사가 이끄는 소대는 중공군의 대규모 야간 기습을 받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이 쏜 수류탄 두 발이 분대원들이 밀집해 있던 참호 안으로 떨어졌다. 첫 번째 수류탄은 케너모어 중사가 즉시 집어 밖으로 던져 위기를 넘겼다.

두 번째 선택: 그러나 곧바로 두 번째 수류탄이 전우들의 발치에 떨어졌다. 이를 다시 집어 던질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발로 수류탄을 짓눌러 덮어버렸다.

부상 투혼: 폭발과 함께 그는 두 다리에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으나, 폭발력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여 주변 전우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대원들에게 사격을 지휘하며 진지를 사수하도록 독려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생존 수훈: 이 사고로 그는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지만 생존했다. 1952년 백악관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예훈장을 받았다.

불굴의 해병: 그는 부상 이후에도 군에 남아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복무하며 해병대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별세: 1989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캘리포니아의 포트 로스크랜스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③ 사진 정보

케너모어 중사의 사진은 주로 다음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초상화: 미 해병대 정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다문 입술이 인상적인 모습이다.

훈장 수여식: 휠체어에 앉거나 의족에 의지해 대통령 곁에서 훈장을 받는 모습은 장진호 전투의 참혹함과 그 속에서 핀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④ 장진호의 '수류탄 영웅들'

장진호 전투에서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명예 훈장을 받은 인물은 총 3명이다.

윌리엄 B. 바우 (전사)

로버트 D. 리즈 (전사)

로버트 S. 케너모어 (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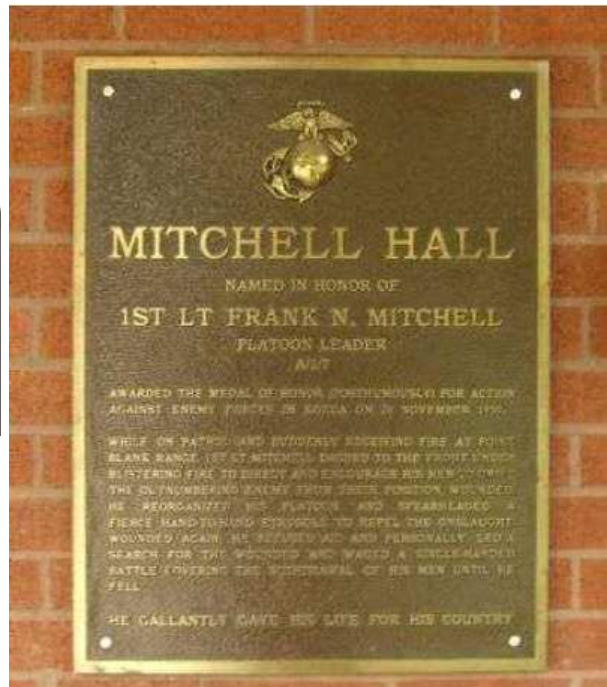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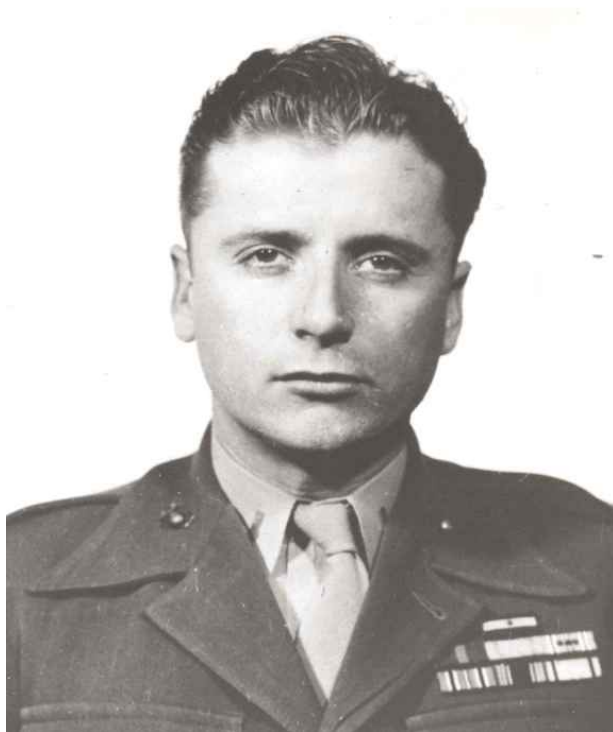
10. 프랭크 N. 미첼(Frank Nicias Mitchell, 1921~1950) 중위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프랭크 N. 미첼 중위는 압도적인 적의 공세 속에서 부하들을 먼저 살리고 자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해병대 장교의 진정한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계급: 해병 대위

소속: 제1해병사단 7해병연대 1대대 A중대 중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은성훈장, 퍼플 하트(Purple Heart)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6일, 한산리 인근)

미첼 대위의 공적은 장진호 전투의 초기 단계인 유담리 인근 '한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중대원들과 함께 전방 정찰 및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고립과 기습: 중대가 압도적인 수의 중공군에게 포위되자, 미첼 중위는 부대를 수습하여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적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노출된 위치에 서서 부하들의 사격을 지휘했다.

부상병 구조: 전투 중 다수의 부하들이 부상을 입고 고립되자, 그는 직접 적진 근처로 달려가 부상병들을 한 명씩 업고 안전한 지점으로 옮겼다. 그 자신도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멈추지 않았다.

단독 후방 엄호: 부대가 포위망을 뚫고 철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미첼 중위는 “내가 남아서 막을 테니 모두 퇴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홀로 남아 소총과 수류탄으로 적의 추격을 저지했다.

최후: 부하들이 안전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미첼 중위는 끝내 그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적진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했으며, 그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다(현재까지 미수습 전사자로 기록됨).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리더십의 상징: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베테랑이었으며, 자신의 생명보다 부하들의 안위를 우선시한 그의 행동은 미 해병대 리더십 교육의 핵심 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명예훈장 수여: 1952년 8월, 그의 아내와 딸에게 명예훈장이 전달되었다.

기념: 그의 이름은 알링턴 국립묘지의 '실종자 추모 벽'에 새겨져 있으며, 텍사스주 로크 월에는 그의 이름을 딴 '프랭크 미첼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③ 사진 정보

미첼 중위의 사진은 해병대 정복을 입고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초상화로 남아 있다. 특히 텍사스 출신다운 당당한 체구와 신뢰감 있는 눈빛이 특징이다.

④ 장진호의 '후방 사수' 영웅들

장진호의 영웅들 중에는 미첼 중위처럼 부대를 위해 홀로 남은 인물들이 많다.

제임스 E. 존슨 상사: 철수 행렬의 후방을 지키다 전사

존 U. 페이지 중령(육군): 해병대의 퇴로를 열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전사

11. 레지널드 R. 마이어스(Reginald Rodney Myers, 1919~2005) 소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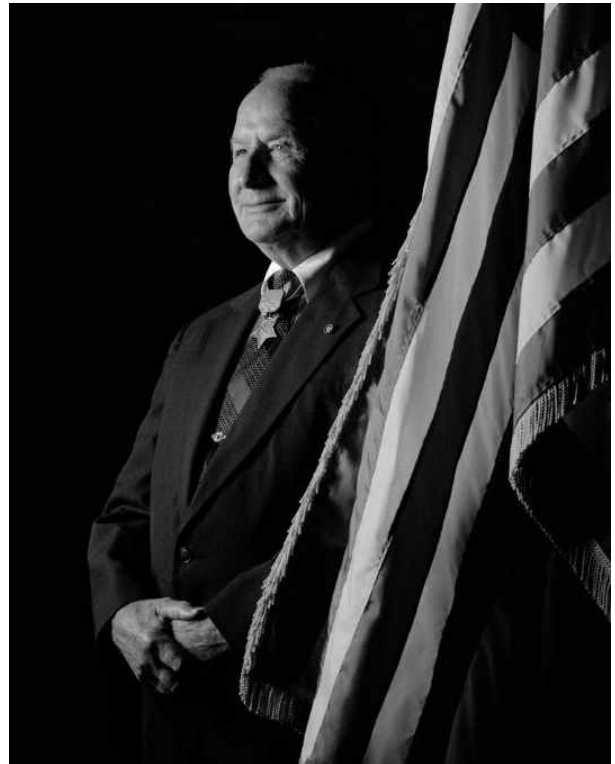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레지널드 R. 마이어스 소령은 ‘전투 병력이 아닌 비 전투 병력’들을 모아 적의 대공세를 막아낸 전술적 기지 수호의 주인공이다.

그는 장진호 철수 작전의 심장부였던 하갈우리(Hagaru-ri)를 지켜냄으로써, 만 명이 넘는 해병대원이 전멸할 뻔한 위기를 막아냈다.

계급: 당시 소령(최종 계급 대령)

소속: 제1해병사단 제1해병연대 제3대대 부대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9일 ~ 30일, 하갈우리)

당시 하갈우리는 아군에게는 유일한 보급로이자 비행장이 있는 핵심 요충지였지만, 방어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공군 2개 사단이 이곳을 집단 공격하기 시작 했다.

즉석 부대 편성: 마이어스 소령은 전투병이 부족하자 행정병, 취사병, 통신병, 공병 등 비전투 요원 약 250명을 긴급히 소집했다. 그는 이들에게 소총을 들리고 즉석에서 전투 부대를 조직했다.

영하 30도의 야간 돌격: 11월 29일 밤, 중공군이 하갈우리 남쪽 고지를 점령하자 마이어스 소령은 이 비전투 부대를 이끌고 눈 덮인 고지를 향해 역습을 감행했다.

치열한 백병전: 그는 직접 선두에서 돌격을 지휘하며 적진으로 뛰어 들었다. 빗발치는 총탄과 수류탄 속에서도 6시간 넘게 이어진 치열한 근접전 끝에 고지를 탈환하고 방어선을 사수했다.

결과: 그의 분전 덕분에 하갈우리의 비행장과 사령부가 보존되었고, 이후 유담리에서 내려온 해병대 본대가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모든 해병은 소총수다”: 마이어스 소령의 활약은 “해병대는 보직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소총수여야 한다”는 미 해병대의 철학을 실천으로 증명한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생존 수훈: 그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살아남아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별세: 2005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③ 사진 정보

마이어스 소령의 사진은 주로 두 가지 모습이다.

전투 당시: 방한복을 입고 지휘관의 위엄을 갖춘 모습.

훈장 수여식: 1951년 백악관에서 대통령 곁에 서서 명예훈장을 착용하고 있는 늠름한 모습

④ 하갈우리를 지킨 또 다른 영웅

마이어스 소령이 비전투원들을 이끌고 남쪽을 지켰다면, 하갈우리 정면 방어선에서는 칼 시터 대위가 이끄는 G중대가 적의 파상공세를 막아냈다.

12. 칼 L. 시터(Carl Leonard Sitter, 1922~2000) 대위

장진호 전투의 심장부였던 하갈우리(Hagaru-ri) 방어전에서 불굴의 투혼을 보여준 칼 L. 시터 대위는 온몸에 중상을 입고도 진지를 끝까지 지켜내 '하갈우리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다.

계급: 당시 대위(최종 계급 대령)

소속: 제1해병사단 1해병연대 3대대 G중대 중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퍼플 하트(Purple Heart)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9일 ~ 30일, 하갈우리 동쪽 고지)

당시 하갈우리는 미 해병대 1사단 사령부와 보급 기지, 그리고 부상병 수송을 위한 비행장이 건설 중이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시터 대위의 G중대는 이곳의 가장 취약한 방어선을 담당했다.

처절한 야간 방어전: 11월 29일 밤, 중공군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시터 대위의 중대가 지키던 고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36시간 동안 끊임없는 백병전이 이어졌다.

중상 속의 지휘: 전투 도중 적의 수류탄 파편이 그의 얼굴과 팔, 가슴에 박혔다. 피가 얼어붙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그는 후송을 거부했다. 오히려 그는 참호 사이를 기어 다니며 병사들에게 탄약을 나눠주고 사기를 북돋웠다.

역습 감행: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 그는 남은 병력을 모아 직접 권총과 대검을 들고 적진으로 돌격했다. 이 무모할 정도의 용맹함에 중공군은 당황하여 물러났고, 결국 하갈우리 방어선은 함락되지 않았다.

결과: 시터 대위가 지켜낸 하갈우리는 이후 유담리에서 철수해 온 해병대원들에게 안식처가 되었고, 흥남으로 향하는 거대한 철수 작전의 발판이 되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살아있는 전설: 그는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훈장을 받았다. 당시 수여식에서 그의 몸에는 여전히 전장의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겸손한 인품: 그는 평생 “나는 그저 내 부하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공을 병사들에게 돌렸다.

별세: 2000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③ 사진 정보

시터 대위의 사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훈장 수여식 당시의 모습이다.

가슴에 명예훈장을 달고, 얼굴 한쪽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는 굳건한 표정의 사진은 장진호 전투의 치열함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13. 존 U. 페이지(John Upshur Page, 1904~1950) 중령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존 U. 페이지 중령은 미 육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철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그는 육군과 해병대의 벽을 허문 진정한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계급: 육군 중령

소속: 제10군단 포병부대 소속 (제52포병대대 배속)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해군 십자훈장(Navy Cross)

참고: 육군 장교임에도 해병대와 함께 싸운 공로로 해군에서 주는 최고 훈장인 '해군 십자훈장'을 동시에 받았다.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9일 ~ 12월 10일)

페이지 중령의 공적은 장진호 전투의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었던 하갈우리~고토리~진흥리 철수 경로에서 빛을 발했다.

자발적인 잔류: 그는 원래 사단 사령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갈우리의 방어선이 위태롭고 철수하는 해병대원들이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자발적으로 현장에 남았다.

즉석 전투 부대 지휘: 포병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보병 부대를 조직했다. 그는 직접 전차 위에 올라가 기관총을 쏘며 적의 매복을 분쇄했고, 고립된 아군 차량 행렬을 구출하기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수차례 뛰어 들었다.

공중 투하 유도: 적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노출된 지점으로 나가 아군 수송기가 보급품을 정확히 투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최후의 사투 (12월 10일): 황초령(Funchilin Pass) 인근에서 철수 대열의 후방을 지키던 중, 그는 적의 강력한 매복을 만났다. 페이지 중령은 홀로 적진으로 돌격하여 소총과 수류탄으로 적의 화점을 제압하며 대열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었으나, 결국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육·해공 합동 정신의 귀감: 그는 육군 소속이었지만, 그의 헌신 덕분에 수천 명의 해병대원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는 그를 ‘명예 해병’과 다름없는 존재로 존경하며, 해군 십자훈장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기렸다.

함명 명명: 미 육군은 그의 이름을 딴 군수 지원함 ‘USAV Lt. Col. John U. Page’를 운용하여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③ 사진 정보

페이지 중령의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쌓아온 베테랑 장교의 관록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안경을 쓰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용맹하게 최전방을 누볐던 ‘선봉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④ 장진호의 두 육군 중령

장진호 전투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육군 중령은 두 명이다.

돈 페이스 중령: 장진호 동쪽에서 중공군의 주력을 막아내며 해병대의 철수 시간을 벌어주었다.

존 페이지 중령: 장진호 남쪽 철수 경로에서 길을 열고 후방을 지키며 해병대의 생존을 도왔다.

14. 윌리엄 G. 윈드리치(William Gordon Windrich, 1923~1950) 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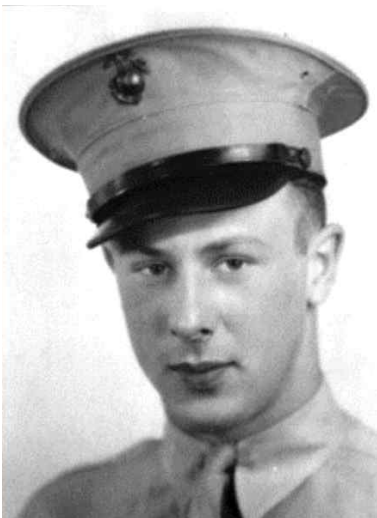
윌리엄 G. 윈드리치 중사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세 번의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전우들을 지켜낸 ‘불굴의 해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칼 시터 대위, 레지널드 마이어스 소령과 함께 하갈우리 방어전의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지탱했다.

계급: 해병 중사

소속: 제1해병사단 5해병연대 3대대 1중대 소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퍼플 하트(Purple Heart)



① 주요 공적 (1950년 12월 1일, 유담리~하갈우리 사이 1520고지)

윈드리치 중사의 공적은 해병대가 유담리에서 하갈우리로 철수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험준한 산악 지대에서 발생했다.

기습과 첫 번째 부상: 야간에 중공군의 압도적인 병력이 소대의 진지를 기습했다. 윈드리치 중사는 적의 수류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부대원들을 재정비하며 반격을 지휘했다.

두 번째 부상과 거부: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어 더 이상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부하들이 그를 후송하려 했으나, 그는 “지금 지휘관이 떠나면 진지가 무너진다”며 거부했다. 그는 피가 얼어붙는 다리를 끌며 진지 곳곳을 기어 다녔고, 병사들에게 탄약을 보급하며 적의 돌격을 막아냈다.

세 번째 부상과 마지막 사투: 다시 한번 적의 총탄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소총을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켜 세워 적을 조준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상당한 부하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엄호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최후: 결국 그는 과다출혈과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로 인한 동상으로 현장에서 전사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소대의 방어선은 끝내 뚫리지 않았고, 철수 대열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부사관의 영혼: 윈드리치 중사의 행동은 “부하보다 앞서 나가고, 부하보다 나중에 물러난다”는 해병대 부사관 정신의 정수로 꼽힌다.

명예훈장 수여: 1952년,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명예훈장이 전달되었다.

기념: 그의 이름은 미 해병대 캠프 르준(Camp Lejeune)의 시설물 등 여러 곳에 새겨져 있으며, 장진호의 영웅들을 기릴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이름이다.

③ 사진 정보

윈드리치 중사의 사진은 해병대 정복을 입고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눈빛을 지닌 베테랑의 모습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그는 한국 전쟁터에서도 그 노련함과 책임감을 마지막 순간까지 발휘했다.

15. 로버트 D. 림(Robert Dale Reem, 1925~1950) 소위

장진호 전투의 영웅 중 한 명인 로버트 데일 림 소위는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해병대의 전형적인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계급: 해병 중위

소속: 제1해병사단 7해병연대 3대대 H중대 소대장

주요 훈장: 명예훈장(Medal of Honor)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6일)

림 소위의 공적은 장진호 전투의 초기 단계인 유담리 인근에서의 교전 중에 발생했다. 비록 날짜는 장진호 전투의 공식적인 시작일(11월 27일)보다 앞서 있지만, 장진호 작전 전체의 맥락에서 그의 숭고한 희생이 인정되어 명예훈장이 수여되었다.

전투 상황: 당시 림 소위가 속한 소대는 유담리 인근에서 압도적인 수의 적군과 교전 중이었다. 그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적의 거점에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기희생: 격렬한 전투 도중 적이 던진 수류탄 한 발이 림 소위와 그의 소대원들이 모여 있는 지점 바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수류탄을 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림 소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수류탄 위로 던졌다. 폭발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여 주변의 전우들을 구했으나, 본인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② 역사적 의미와 예우

림 소위의 행동은 미 해병대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가치인 “전우를 위한 자기희생”의 표본으로 기록되었다.

훈장 수여: 1952년 2월 8일, 림의 미망인은 펜타곤 관계자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기념 시설: 그의 고향 펜실베이니아주 공공 도서관과 커뮤니티에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이나 기념비가 세워져 그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③ 사진 정보

림 소위의 공식 사진은 정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해병대 초상화로 남아 있다. 앓된 얼굴이지만 결연한 표정이 인상적인 사진이다.

④ 참고

희생: 림 소위처럼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전우를 구한 사례는 장진호 전투에서 윌리엄 바우 일병, 로버트 케너모어 중사 등 여러 명 있었다. 그만큼 장진호의 참호전과 근접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 생활과 결혼: 림 소위는 1943년 해병대 사병으로 입대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2개월 뒤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194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 소위로 임관, 제2해병사단 제6해병연대 3대대에 배치됐다.

1949년 4월 9일, 그는 도나 짐머리라와 해군사관학교 예비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나는 미 해군 대위의 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동문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14개월 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림은 1950년 8월 한국으로 이동해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 3대대 H중대장으로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작전에 이어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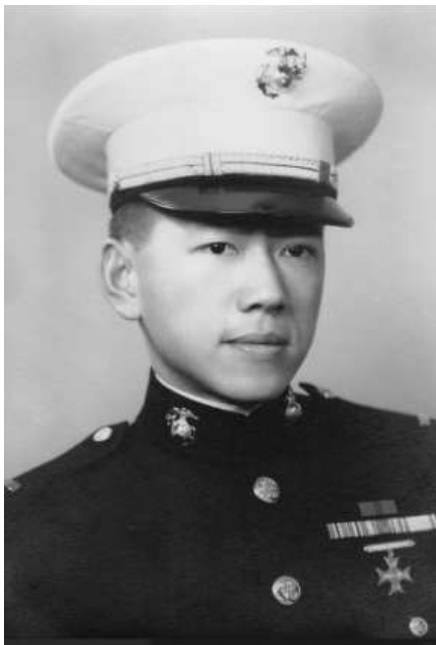
16. Kurt Chew-Een Lee(呂超然/여초연 1926~2014)

장진호 전투의 또 다른 전설, 커트 츠인 리(Kurt Chew-Een Lee) 중위는 미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중국계) 장교이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화를 남긴 인물이다. 장진호 전투 당시 그는 제1해병사단 7연대 1대대 B중대의 소대장으로 참전했다.

계급: 중위(최종 계급 소령)

주요 훈장: 해군 십자훈장(Navy Cross), 은성훈장(Silver Star)

별명: "The Immortal(불멸의 해병)"



① 주요 공적 (전투 상황)

그는 장진호 전투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1950년 11월 초순부터 중공군과의 교전에서 독보적인 용맹을 떨쳤다.

“쏘지 마, 난 중국인이다!” (1950년 11월 2일~3일 밤):

함흥 북쪽 진격 중, 그의 소대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중공군의 야간 기습을 받았 습니다. 리 중위는 적들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홀로 전방으로 나아가 중공군에게 중국어(광둥어와 만다린)로 소리쳤다.

“쏘지 마! 난 중국인이다!(Don't shoot! I'm Chinese!)”

적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멈추고 머뭇거리는 사이, 리 중위는 수류탄을 던지고 위치 를 노출시켜 소대원들이 적의 화점을 파악하고 섬멸할 수 있게 했다. 이 공로로 그 는 미 해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인 해군 십자훈장(Navy Cross)을 받았다.

부상 투혼과 덕동고개 구출 작전:

그는 전투 중 총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나, 병원을 탈출(!)하여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레이먼드 데이비스 중령과 함께 눈보라가 치는 야간에 산맥을 넘어 고립된 윌리엄 바버 대위의 중대(덕동고개 사수 부대)를 구출하는 선봉에 섰다. 당시 그는 팔에 깁 스를 한 상태로 부대를 지휘했다고 전해진다.

②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

편견과의 싸움: 당시 미군 내에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존재했다. 리 중위 는 훗날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공군을 더 잘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스스로 ‘미 국 해병’임을 증명했다.

불멸의 기록: 그는 6·25 전쟁 중 총 3번의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동생들인 쉐판 리(Chew-Fan Lee), 쉐몽 리(Chew-Mon Lee) 역시 한 국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영웅 가문’이기도 하다.

③ 사진 및 기록물

유명한 사진: 그가 방한복을 입고 카빈 소총을 든 채 매서운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 하는 흑백 사진은 장진호 전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이다.

다큐멘터리: 2010년, 그의 일대기를 다룬 <Uncommon Courage: Breakout at Chosin>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스미소니언 채널에서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참고: 리 중위는 2014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는 장진호 전투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언어와 외모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한 지능적이고 용맹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17. 존 H. 안시(John Howard Yancey, 1918~1986) 중위

존 하워드 안시 중위는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전설적인 소대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명예훈장 수훈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초인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 중 하나인 '유담리 1282고지 전투'의 영웅이다.

계급: 당시 중위(최종 계급 소령)

소속: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E중대 1소대장

주요 훈장: 해군 십자훈장(Navy Cross) 2회 수여, 은성훈장, 퍼플 하트



① 주요 공적 (1950년 11월 27일~28일 밤, 유담리 1282고지)

얀시 중위의 활약은 장진호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중공군의 대공세 때 발생했다. 당시 그가 지키던 1282고지는 유담리 방어의 핵심이었다.

압도적인 수세: 영하 30도의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의 중공군이 호각을 불며 얀시 중위의 소대로 밀려들었다. 소대원들이 공포에 질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소리쳤다. “해병대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서 모두 죽여버리자!”

치명적 부상과 투혼: 전투 중 그는 적의 수류탄 파편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주저앉고 한쪽 눈이 튀어나오는 중상을 입었다. 총알이 그의 코를 관통했고, 두 번째 총알이 그의 오른쪽 뺨을 관통해 이빨을 부러뜨렸다. 또 입 안에 총알이 박혀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그는 2차 대전에서도 박격포탄 폭발로 얼굴에 파편상을 입었다.)

불굴의 지휘: 그는 튀어나온 눈을 손으로 밀어 넣고 붕대로 감은 채, 피를 토하며 소대를 지휘했다. 적군이 참호 안까지 들어오자 권총과 대검으로 백병전을 벌였고, 소대원들이 동요할 때마다 맨 앞에 서서 적을 격퇴했다.

결과: 그의 소대는 90%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지만, 얀시 중위의 광기 어린 투혼 덕분에 고지는 함락되지 않았다. 만약 이곳이 뚫렸다면 유담리에 있던 해병대 본진은 그대로 궤멸당했을 것이다.

② 왜 ‘명예훈장 명단’에는 없을까?

그는 이 전투로 미 해군 서열 2위 훈장인 해군 십자훈장(Navy Cross)을 받았다.

“얀시 중위가 명예훈장을 받지 못한 것은 역사적 미스터리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공적은 명예훈장 수훈자들에 전혀 뒤쳐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날 전투에서 얀시 중위의 상급자들이 모두 전사하는 바람에 그의 영웅적 행동에 대해 공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③ 사진 및 일화

사진: 부상 후 안대를 하고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후송되는 그의 사진은 장진호 전투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종군 사진 중 하나이다.

전후 활동: 그는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고향인 아칸소주로 돌아가 사업가로 성공했다. 그는 평생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자신이 지킨 자유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다.

월남전 참전 지원 일화: 얀시는 나중에 월남전 참전을 지원했지만 참전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참전 불가 통지를 전달한 담당 장교가 여러 사유 중에서 윗나가 없는 것을 인용하자, 얀시는 “대령님, 나는 적군을 이빨로 깨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요약

존 얀시 중위는 “명예훈장보다 더 명예로운 해군 십자훈장 수훈자”로 불린다. 1282고지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지금도 미 해병대 소대장 교육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올리버 P. 스미스 (Oliver Prince Smith, 1893-1977)

올리버 P. 스미스는 미 해병대 4성 장군이자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훈장 수훈 용사이다. 그는 한국전쟁 첫해에 미 제1해병사단을 지휘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장진호 전투 당시 “후퇴라니, 제기랄! 우리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말은 종종 "후퇴라니, 제기랄!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다"로 잘못 인용되기도 한다.) 그는 전투에서의 영웅적 행위로 특별 표창을 받아 대장(4성 장군) 계급으로 예편했다.

군 경력: 초기 시절

스미스는 텍사스주 메나드에서 태어났다.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북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1911년 산타크루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UC 버클리에 진학했으며, 주로 정원 가꾸기 같은 잡일을 하며 학비를 벌며 졸업했다. 1917년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며 현역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교파의 일종)'였다.

임관 다음 달, 그는 마리아나 제도의 괌에 첫 해외 배치를 받아 해군 기지 해병 병영에서 근무했다. 괌 복무 중 에스더 로릴라 킹과 결혼하여 58년 동안 부부로 함께 했다. 이후 마레 아일랜드, 전함 텍사스(BB-35) 함상 근무를 거쳐 워싱턴 D.C. 해병대 본부 인사부에서 근무했다.

1928년 아이티의 헌병대 부참모장으로 해외 근무를 했고, 1931년 귀국 후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미 육군 보병학교에서 고급장교 과정을 이수했다. 1934년 프랑스 파리로 파견되어 미 해군 무관실에서 근무했으며, 해병대 장교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육군대학(Ecole Supérieure de Guerre)에 입학했다.

1936년 귀국 후 칸티코 해병대 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며 ‘교수님(The Professor)’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시기 그는 지성파 군인으로 명성을 쌓았으며 상륙 작전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1942년 해병대 본부 계획정책부 부장을 거쳐, 1944년 뉴브리튼 섬의 제1해병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제5해병연대장을 맡아 글로스터 곳 작전의 탈라세아 단계를 이끌었다.

1944년 4월 제1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임명되어 펠렐리우 전투에 참전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미 제10군 해병 부참모장으로서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 전투에 참여했다. 전쟁 후 칸티코 해병대 학교장, 해병대 부사령관 및 본부 참모장을 역임했으며, 해병대 전문 학술지인 <매린 코 가젯(Marine Corps Gazette)>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전쟁

1950년 6월 제1해병사단장으로 부임한 스미스 소장은 인천상륙작전부터 장진호의 영하 추위 속 복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의 가혹한 전역을 이끌었다.

1950년 10월, 제1해병사단은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 이끄는 미 육군 제X(10)군단 지휘 하에 원산에 상륙했다. 알몬드와 스미스는 인천 상륙 전 일본에서의 만남 때부터 서로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알몬드는 상륙 작전을 한 번도 계획하거나 참여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쉬운지 떠벌렸고, 스미스보다 고작 10개월 연상이었음에도 그를 “아들(Son)”이라고 불렀다.

스미스와 해병대 지휘부는 알몬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느꼈으며, 도쿄의 상부(맥아더 사령부)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 대규모 중공군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스미스 장군은 압록강까지 최대한 빨리 북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항명에 가까울 정도로 사단의 행군 속도를 지속적으로 늦췄다. 그 과정에서 그는 보급 기지를 세우고 비행장을 건설했다.

1950년 11월,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에서 포위되자 그는 돌파 작전을 지휘하여 흥남항까지 110km(70마일)의 퇴각 행군을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신중한 복진 과정과 사단을 결속력 있게 유지한 능력 덕분에 제1해병사단, 그리고 어쩌면 제10군단 전체를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

스미스 장군은 1951년 5월 미국으로 귀국하여 캠프 펜들턴 기지 사령관을 맡았다. 1953년 중장으로 승진하여 대서양 함대 해병군 사령관으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뒤, 1955년 9월 1일 대장 계급으로 퇴역했다. 그는 197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토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요약 및 배경 지식

스미스 장군은 “신중함이 곧 생명”임을 몸소 보여준 지휘관이었다.

알몬드 장군과의 갈등: 속도전을 강조한 알몬드 장군과 달리, 스미스 장군은 중공군의 매복을 우려해 행군로 주변에 비행장을 닦고 물자를 비축했다. 만약 그가 명령대로 무작정 복진만 했다면, 장진호에서 포위되었을 때 미 해병대는 전멸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명언의 진의: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는 말은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는 병사들에게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부수며 새로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강조한 고도의 심리적 리더십이었다.

〈추가적인 에피소드〉

1. “고귀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전사자 예우)

장진호 전투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전사자 수습에 대한 스미스 장군의 고집이다. 당시 미 제10군단 사령부는 긴박한 후퇴 상황에서 “*”부상자만 수송하고 시신은 버리고 가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스미스 장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해병은 전우의 시신을 적지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후퇴하는 트럭에 물자를 버려서라도 전사한 해병들의 유해를 모두 실으라고 명령했다. 이는 병사들에게 “내가 죽어도 사단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한 믿음을 주었고,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부대가 와해되지 않고 군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 하갈우리 비행장 건설의 '신의 한 수'

스미스 장군이 상급자인 알몬드 장군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행군 속도를 늦추며 장진호 인근 하갈우리(Hagaru-ri)에 간이 비행장을 건설한 것은 전사(戰史)에 남을 결정이었다.

비난: 당시 육군 사령부는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느냐”며 비난했다.

결과: 중공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이 비행장은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 약 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이 비행장을 통해 공중으로 후송되었고, 신병과 물자가 공급되었다. 만약 스미스 장군이 '교수님' 같은 꼼꼼함으로 이 비행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에서 전멸할 수도 있었다.

3. “우리는 훌륭하게 싸웠다” (알몬드와의 대조)

흥남 철수 직후,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해병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훈장을 수여하러 왔을 때의 일이다. 알몬드 장군은 중공군에게 밀려 내려온 상황을 의식한 듯 병사들에게 “별것 아니다, 그냥 자연 작전이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스미스 장군은 이를 듣고 매우 불쾌해하며 부하들에게 별도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패배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중공군 사단을 격파하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온 승리자들이다.”

자존심 강한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을 지켜준 이 한마디는 훗날 해병대 역사에서 스미스 장군이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하나가 된 이유이다.

4.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와 '술·담배'

스미스 장군은 독실한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Christian Scientist) 신자였다. 그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거친 욕설도 거의 입에 담지 않는 신사였다.

거칠고 야성적인 해병대 문화 속에서 이런 정갈한 모습은 오히려 부하들에게 신비감을 주었고, 위기 상황에서 그가 내뱉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명령(예: “공격 방향을 바꾼 것뿐이다”)이 더 큰 설득력을 갖게 했다.

흥미로운 점:

스미스 장군은 1977년 성탄절(12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메리디스 빅토리호가 거제도에 도착해 14,000명의 생명을 구한 날도 바로 성탄절이었다. 한국전쟁의 기적을 일궈낸 영웅이 크리스마스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묘한 인연이다.

